표지사진 : 수자타아카데미 개교7주년 기념식으로 준비했던 문화행사가 고 설성봉님의 뜻을 기리기 위한 추도식으로 진행되었다.

JTS 통권 34호 2002년 3 · 4월

펴낸날 : 2002. 3. 1
펴낸이 : 법 륜
만든이 : 이지현
도운이 : 김애경, 최양희, 한인봉, 최정연, 장옥희, 김경희, 이순희, 이미경
펴냄터 : (사)한국제이티에스
주 소 :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토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
인터넷 : www.jts.or.kr

인도 붕게스와리 소식

4 아이들 하나 하나의 가슴에 살아있는 설거사님!
6 안싸! 수자타 아카데미 문화반
8 인도에서의 삶과 고뇌

북한

10 허술한 준비, 열띤 마음, 신나는 하루
11 모금을 하면서

후원의 소리

12 이 세상은 수행의 장
13 어두운곳에 작은 등불이
14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를 다녀와서
15 인도 자원봉사를 하고나서

활동보고 및 안내

16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북한지원 사업
국내사업
물품지원

18 신규회원 명단 및 특별성금
19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22 전체 후원 현황
29 편집 후기
30 후원프로그램 안내

고설성봉님의 자비정신을 기리며 글을 올립니다.

아이들 하나 하나의 가슴에 살아있는 설거사님!

전정각산의 달은 다시 밝습니다.

그러나 달밤에 함께 노래하고, 의논하고, 주위를 살피던 설성봉 거사님은 다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주말 전체회의를 하면서 지난번 회의 때 성지순례 준비며 개교기념식 준비를 위해 마지막 회의를 함께 했는데 설거사님만 빠지게 되어 다들 섭섭해했습니다. 설거사님을 위한 잠시 묵념을 시작으로 회의를 하면서 우리 모두는 그 분이 없는 빈 공간이 너무나 큼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인도 공화국 창건 52주년 기념일입니다.

아이들이 각 유치원에서 행사를 하고, 10시에 수자타 아카데미에 모여 함께 행사를 했습니다. 소라즈비가에서 행진을 해와서 학교 운동장에 모여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부르고, 연설을 하는 그런 일반 행사를 마치고, 강당에 모여 설거사님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인도 풍속으로 장례를 치른 후 13일이 지나면 마을 사람들이 문상을 하고, 식사를 대접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행사를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9시경부터 설거사님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10여명이 모여 다비장에서 삭발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가족이나 친척이 하는데, 두 마을 사람들이 가족이 되어 삭발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10시에는 각 마을에서 온 학생, 어머니회 회원, 청년 회원 등 1000여명이 모여 모두 설거사님 영전에 꽃 공양을 올리고 명복을 비는 묵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온갖 고통을 겪다가 독립하였듯이, 우리도 가난과 질병, 문맹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의 먹을 것보다도, 장래를 위해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거사님은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가족도 남겨두고, 먼 이 곳까지 와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환자를 위해서 병원을 짓다가 불행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설거사님의 그 숭고한 뜻을 계속 이어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함께 해야만 가능합니다.' 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고 곧 아이들의 문화공연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웃는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아이들이 구걸을 하다가 학교에 다니면서 저렇게 의젓하고 예쁘고 발랄해졌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 학

교를 지으신 분, 보시하신 분 등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수진 법우의 노고가 얼마나 큰 성과로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태권도를 하는 우렁찬 목소리와 힘찬 동작, 부채춤 등 한국문화도 선보였습니다. 설거사님이 마지막까지 꾸민 무대며, 또 파트나까지 가서 사 온 엠프가 좋아서 공연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설거사님 영전에 촛불 공양을 올리며 '설지 사랑해요' 할 때는 설거사님은 결코 비명에 돌아가신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전정각산의 산신이 되어 보살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아이들 하나 하나의 가슴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그 동안 공부 잘 한 학생, 결석 안한 학생들에게 상을 주고, 또 참석한 모든 학생들에게는 옷과 연필, 노트를 주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비누를 주고, 모든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JTS컵 쟁탈 축구대회 결승전이 있었는데 '바가히'와 '가왈비가'가 격렬한 결승전을 치렀는데 결승에 올라온 팀답게 경기를 아주 잘 했어요. 맨발로 뛰는데도 정말이지 프로축구 보는 것보다 더 재미가 있었어요. 결국 '바가히'가 2:1로 이겼어요. 중간에 심판 판정에 불만족하여 불상사가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잘 끝났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지나간 둥게스와리 마을은 이제 지난날과 다를 바 없이 조용합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약간의 긴장감 속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철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결의는 더욱 굳건합니다. 설거사님을 보조하며 공사장에서 자원봉사하던 정상민씨가 복학을 연기하고 공사를 마무리짓겠다고 원을 세웠습니다. 6개월간 비자를 연장해서 설거사님이 하시던 일을 마무리 짓겠답니다. 얼마나 장한 행동입니까. 모두들 내일 회향인데 나갔다가 27일 49재 때는 모두 다시 오겠답니다.

사건은 단순강도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저녁 6시에 문을 닫으니 그 전에 들어오려다가 설거사님께 발견되어 실패하자 총기를 난사하여 그 총알이 심장을 맞아 바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이 원한관계라고 발표한 것은 설거사님이 기술자니까 노동자들과 갈등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선입견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었고, 현재는 단순강도사건으로 한 명이 체포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6~7명은 도망가고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동안 기도해주시고, 염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시고, 염려해주신 덕분으로 그나마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달라이라마님께서도 설거사님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시고 '좋은 곳에서 좋은 일 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곳에 태어날 것입니다' 하며 위로해주셨습니다.

불행을 다행으로 여기며, 더 큰 원력으로 수행정진 할 것을 다짐하며 이만 줄이고 인사드립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2002년 1월 26일 밤 전정각산 아래에서
법륜 합장.

*설성봉님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중학교신축 건물에 기념관을 마련하고, 다비식장에 부도탑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설지봉사상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앗싸! 수자타 아카데미 문화반

이수진 님 (한국JTS인도파견)

'에끄, 도, 띤, 짜르(하나, 둘, 셋, 넷). 엑사드 슈무(다 같이 시작).

공부만 하던 수자타 아카데미가 시끌벅적합니다.

11월부터 시작된 예체능 수업으로 학교가 춤을 추듯 들썩거립니다.

노래 잘하는 아이, 춤 잘 추는 아이, 그림 잘 그리는 아이, 악기를 잘 다루는 아이, 운동 잘 하는 아이……. 숨은 그림 찾기하듯 찾아낸 아이들 하나 하나의 재능과 특기가 새록새록 싹이 트여 눈에 띄게 자라는 게 보입니다.

학년 별로 진행된 두 번의 테스트, 그리고 최종 면접을 거쳐 새롭게 탄생된 수자타 아카데미 문화반! 합창반 30명, 무용반 36명, 태권도반 20명을 먼저 결성했는데, 다재 다능해서 겹치는 아이들도 있고 보니 문화반 총 학생수가 56명! 수자타 아카데미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불덩이 같은 아이들입니다. 춤이 추고 싶어서, 노래가 하고 싶어서, 운동이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지 새장 속을 뛰어나온 새가 맘껏 창공을 날아가듯 신나게 뛰어 놀고 즐기는 모습들이 눈물나게 예쁩니다. 그 끼를 맘껏 펼칠 수 있도록 더 훌륭한 교사를 모시지 못하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춤에 재능이 있는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 보이려 멀리 가야에 사는 여자 무용 선생님을 구해 보려 했습니다. 만나서 우리 학교의 상황을 설명하고 직접 그분이 가르치는 예술 학교선생님들을 요청했습니다. 집이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 해서 자전거로 1시간 30분 거리를 제가 직접 모셔오고 모셔다 주겠다고 간절히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자원 봉사로 해야 한다고 하니 무료 봉사는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반을 가르쳐 주실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그런 예술 방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원 봉사자를 찾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고민됩니다. 그래서 생각 것이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새로운 경험을 시켜 줄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을 마을에서 구해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마을 노래 자랑 대회 개인 부분에서 1등한 빠레와 마을의 '자나르단' 이란 분을 모시고 1월에 있을 개교 기념식 문화 공연 준비에 합창반과 함께 한창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행사 이후에도 이분이 계속 아이들을 지도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수자타 아카데미 8주년 개교 기념식 문화 행사에는 총 열 한 개 팀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먼저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합창반에서 합창과 중창, 무용반에서 템버린, 댄스, 포크 댄스, 촛불 댄스, 태권도 반에서 태

권도 시범을, 상급반 여학생들이 부채춤을, 남학생들이 연극을 준비해서 총 8개 팀이 공연을 펼칠 것입니다. 축하 공연으로 마을 노래 자랑 대회에서 단체 부문 1등한 빠레와 어머니 합창단, 보드가야 마하보디 소사이어티 학교 학생들, 그리고 한국 봉사자 중 태권도 유단자의 태권도 시범, 이렇게 3개 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시간 안에 진행되어야 하기에 빈틈없이, 그리고 그 동안의 어떤 문화 행사보다도 탁월한 실력을 보여 주기 위해 날마다,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 준 탬버린으로 신나게 춤을 추고 100여 명의 한국 손님을 위한 특별 공연으로 상급반 학생들이 한국 전통 부채춤을 추고, 남녀 학생들이 짝을 지어 포크 댄스를 추고, 중창단 학생들이 노래 선생님과 함께 공연을 하고, 상급생 남자 아이들이 부처님의 일생 중 각 부분을 연극으로 꾸미고, 운동과 예법을 가르치기 위해 시작한 태권도 반에서 그간의 기량을 선보이는 태권도 시범이 있고 유치원 아이들이 합창반의 합창에 맞추어 귀여운 율동을 보이고, 8주년을 기념하는 8명의 아이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 이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장엄한 춤을 펼쳐지는 것으로 수자타 아카데미 8주년 기념식을 멋지게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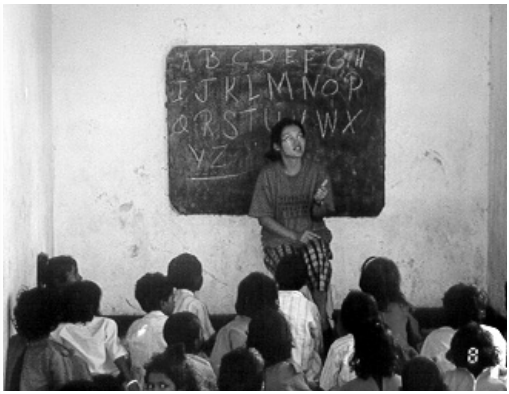
2002년 1월 13일 일요일 오전 10시, 아이들이 맘껏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는 한국 후원자들, 학교를 늘 지켜봐 주시는 보드가야 스님들, 마을 사람들, 학생들 그 밖의 초청 손님들 등 총 1000여 명이 수자타 아카데미 개교 8주년을 축하하고, 문화반 아이들이 펼치는 공연을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해 낼 것입니다.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기량을 펼치는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무척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행사 후에는 아이들을 가르쳐 줄 선생님을 적극적으로 구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더 발견하고 키워나가 나중에는 보드가야, 가야 큰 시내까지 순회 공연도 펼쳐 볼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멀리하던 둥게스와리 불가촉 천민마을 거지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변해 온 것을, 그리고 변해 가는 것을 온 인도 천하에 보여줄 것입니다. 길에서 움츠리고 구걸하거나 천민이라는 계급에 눌려 희망도 용기도 없는 아이가 아니라, 당당하게 두 어깨 쫙 펴고 대중들 앞에 서서 자신의 끼를 맘껏 발산하는 수자타아카데미 아이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 주십시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아이들은 더 큰 보리수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큰 보리수처럼 우리 수자타 아카데미 아이들도 세상에 잘 쓰이는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수자타 아카데미는 희망입니다.

인도에서의 삶과 고뇌

정정임 님 (인도마을개발담당)



1999년 3월 나는 인도로 떠났다. 1997년 성지순례를 하면서 꼭 다시 오리라 다짐했기 때문에 막연히 떠났다.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설레임만 있을 뿐 그냥 두려움은 접어둔 채로..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만으로도 인도는 나에게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인도에서의 3년은 단지 그리움만 가진 채로 나를 내버려두지 않았다. 길가에 이리저리 나뒹구는 아이들, 헐벗은 여인들, 신음하는 병자들. 수 천년을 그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왔을 그 삶을 나도 처음에는 당연하게 보았다. 아직도 당연히 볼 수 있다. 있는 그대로. 그러나 당연히 보기에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은가? 가진 자들이 너무 많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호위호식은 아니더라도 3끼를 제때 먹고살던 내게 짜이 한잔으로 아침을 먹고 걸어서 뜨거운 태양아래 1시간을 걸어서 마을유치원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코흘리개 아이들을 가르치고 씻기고 돌아오는 일은 참으로 힘들지만 그 뿌듯함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순간 나를 돌아보아야 했다. 이 아이들의 가난과 문맹을 통하여 내가 뿌듯하다니 이 삶이 나에게 진정 정당한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스스로와 싸워야 했다.

1999년 8월 스리랑카의 사르보다야로 견학 겸 훈련을 떠났다. 농촌부흥운동을 통한 제3세계의 개발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었다. 개인의 영적 깨달음을 통한 세상의 깨달음이라. 스리랑카의 산골농촌의 한 fieldworker(현장활동가)를 통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일구는 작은 정성을 보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멋진 삶을 보았다. 하루종일 지역을 돌며 가난한 사람을 모으고 그들 스스로 자립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일 아니 이렇게 멋지고 새로운 일이 있을 줄이야. 나도 그렇게 살고자 마음을 내었다.

그리고 인도로 돌아와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마을개발 사업에 뛰어 들었다. 1-2년 안에 될 수는 없으리라. 10년 아니면 50년이 걸릴까?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상대적 빈곤이 아닌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는 그들과 함께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보고 풀어보고자 했다.

8개 마을을 때론 산을 넘고 때론 강을 넘어 방문했다. 그들의 배고픔, 추위, 더위가 뼛속에 스며든 것은 나도 역시 배고픔 ,추위, 더위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주일에 한 번씩 마을 유치원 교사들과 회의를 하고 그들이 느끼는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되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운동회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 힌디 웅변대회도 했다.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마을개발 사업만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절망도 많았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분노를 하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싸웠다. 하였다. 내 안에 있는 하고자하는 욕구가 많을수록 더더욱 절망했다.

어느새 3년이 다 되어 가면서 조급함이 나를 괴롭혔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서 행복했던 인도가 되는 것이 없어 속상하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이 속상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가난하고 못 배웠지만 행복한 그들의 순수함과 조금은 기대하고 바라는 그들의 작은 욕심사이에서 나 역시 갈등하고 있었다.

나의 일에 대한 욕심과 그들의 욕심이 맞물려지고 있었다.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기였다. 식수문제, 건강 ,문자해독... 하려면 할 것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었다. 나에게 어디까지라는 선이 보이지 않았다. 어디까지가 절대빈곤인지 상대적 빈곤인지 내 잣대로 만들 수도 볼 수도 없었다.

나 역시 마을개발 사업과 더불어 내 인생의 점검이 필요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객관적 평가와 전문가의 견해도 한몫이 될 것이다.

인도에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 지진, 가뭄, 홍수...

2000년 인도의 구자라트 지진 캠프 때도 마을의 유치원 교사들6명이 나와 함께 달려갔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나와 함께 3년을 보낸 그 마을교사들 20여명이 달려갈 수 있다면 마을개발사업의 큰 성과가 아닌가 싶다.

지구촌 어느 곳 종교와 인종과 성별에 상관없이 어디든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JTS가 얼마나 잘 쓰여지는 가는 현장활동가, 사무실 실무자, 자원활동가, 후원 회원들의 각자의 간절한 서원들이 잘 어우러질 때 가능하다고 믿는다.

허술한 준비, 열띤 마음, 신나는 하루

이수경 님 (부산청년정토회원)

부산 청년 정토회는 한 달에 2번씩, 2째주 토요일과 4째주 일요일 모금을 하고 있다.

J.T.S의 라진. 선봉결연사업 결연금으로 두만강 구 유치원어린이들에게 보낼 영양식 값으로 60만원을 매달 지원하고 있다.

근데 하반기에 와서는 그 60만원을 다 채우질 못하는 때가 많았다. 그래서 1년 총 72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계산해보니 100여 만원이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청년회원들이 돈을 조금씩 내어서 2001년 분의 모자라는 결연금을 채우기로 했다.

북한어린이들을 돕는 일 만큼에 있어서는 청년회원들의 마음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

2째주는 캠페인이 토요일에 있어서 시간이 가능한 청년이 모금을 한다. 인원수가 5명 안팎이다. 하지만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부산역 광장에 청년정토회원들의 모습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다. 보통 15명 안팎의 인원이 2시간 남짓 모금을 한다. 편히 쉬고 싶은 주말일텐데 바쁜 걸음으로 사람들을 따라가며 설명하고 있는 청년 회원들을 보고 있으면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진다.

좋은 사람들.....

어깨띠 하나에 모금함 하나를 들고 나가는 회원들을 보면 조금 더 준비를 잘 할 걸 싶다.

모금해 주는 사람도 믿고 성금을 내고, 또 캠페인을 하는 회원들도 든든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싶은데 모금준비는 항상 허술해 보인다. 요즘같이 날씨가 추운 날은 더 미안하다. 뜨거운 물이라도 좀 준비할 걸 싶다. 다정한 모습으로 방긋 웃고 다가가 차분하게 설명하는 회원들의 모습, 추우면 추운데도 더 열심이다. 그런 모습에 믿음이 가는지 모금액은 곧잘 20여만원이 넘는다. 신기하다. "저번에도 여기서 했는데. 또 해요?", "이거 진짜 가요?", "남쪽도 굶는다는데 뭐 하는 거요?" 많이 들어본 이런 소리에 대해서 이제는 닷하는 회원들은 누구도 없다.

그렇게 2시간 동안 모금을 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많다. 계속 보게 되는 시계탑. 하지만 모금이 끝나고 났을 때의 뿌듯함이란...

모금함엔 성금을 듬뿍(?) 담고 얼굴엔 뿌듯함을 가득 담고 엠프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청년들... 모금 캠페인이 끝났다는 홀가분함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흐뭇함과 자신의 낸 적은 시간이 굶주리는 북한 아이들을 위해 잘 쓰여지고 있다는 이런 기쁨들이 함께 하는 순간이다.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함께 나누며 살고 있는 청년 회원들. 행복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아~~~ 좋다.

모금을 하면서.....

허애영 님 (회원, 여, 32세)

처음 일인모금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통일강좌를 들으면서였다.
통일에 대한 마음속 염원과 달리 현실에선 아무 것도 실천하고 있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부터 모금함을 들고 거리로 나가게 되었다
얼마간 하겠다 기간을 정하지도 않았고 그냥 되는데까지 해보겠다는 생각이었다. 사실 마산 법당 유애경 보살님의 실천력이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다.
11월 한 달은 하루도 빠짐없이 모금을 했다. 일요일날인 경우 친구와 약속이 생기면 약속시간 한시간 전에 나가서 모금을 했다. 평일엔 법회 있는 날은 법당 근처에서 잠깐 했고 아니면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했다. 때마침 연말이라 모금에 대한 호응이 참 좋았다.
꼭 북한 동포가 아니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마음 내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도 매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날도 모금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고 또 법회 있는 날은 늦더라도 잠깐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법문을 놓칠 때도 있었다.
하기 전엔 가볍게 해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일단 시작하고 나서는 가볍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 원과 욕심의 차이인 것 같다.
그래도 일단 모금이 시작되면 머리 속에는 북한동포의 굶주림과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내 머리 속에 막연하게나마 통일의식들로 채워진다. 당연히 다른 고민들이나 잡념들이 들어올 틈이 없다. 그래서 모금후의 느낌이 기도후의 느낌과 비슷 한지도 모르겠다. 차분해지고 편안해 지는 느낌 그리고 뿌듯함. 물론 모금을 하면서는 모금액수에도 집착이 많이 되었다. 모금이 잘 안 될 때는 힘이 빠지고 피곤함도 많이 느껴졌다.
그럴 땐 모금 액수 보단 모금에 동참한 사람들의 마음을 느껴 보려도 애썼다.
자신도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 모금함에 돈을 넣어 줄 때는 가슴이 뭉클했다.
비록 모금을 하지 않더라고 내가 모금하는 것을 보고 북한주민들의 굶주림을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마음속으로 바랬다.
모금을 하면서 참 좋았던 점은 모금함 하나만 들면 누구에게라도 쉽게 다가가 말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평소 같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서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눈길을 주더라도 내겐 중요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고, 들풀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모금은 자연스럽게 수행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내게 있었던 또 다른 변화라면 통일염원 철야정진에 임하는 마음이 간절해 졌다는 것이다.
일인 모금 해보겠다 발심 하고 11월 12월 두 달간은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내 자신이 주인으로 살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나도 세상에 나름대로 쓰일 수 있다는 흐뭇함 같은걸 느낄 수 있었다.
처음 같은 열정이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내 속엔 과거에 모금을 했던 업들은 남아 있을 것이다. 그 업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날을 기대해 본다.

이 세상은 수행의 장

김재웅 님 (회원, 남, 51세)

평소 그 사람은 다소 무리하게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 왔고, 나 자신 내심으로는 불만스러우면서도 어쩔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응해주곤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동료가,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꼼짝 못하느냐고 물어왔을 때, 무엇인가 꽝하는 충격과 함께 당황스러워 제대로 답할 수 없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아쉬워서 그렇게 쩔쩔매어 왔는지, 평소 나는 그 사람에게 베푼다는 마음으로 지내 왔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깊은 혼란과 의문이 계속 뇌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이 의문을 화두로 삼아, 늦은 밤에 백팔배 명상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의도적인 몸 동작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절 동작은 잊혀지고 화두에 집중되면서, 서서히 답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내가 두려워 한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나 자신의 생존과 행복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내가 그 사람 비위에 거슬리면, 그를 통하여 얻었던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만족을 기대할 수 없고 나아가 큰 피해가 올지 모른다는 공포였던 것이다. 내가 그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구를 들어 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확보하기 위한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와 그를 위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었다. 결국,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 욕망이 불안과 공포를 잉태하면서 지혜와 판단이 흐려지고, 나중에는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고통 속을 끄달려 다녔던 것이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뿐 아니라 나의 결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소중한 가르침을 얻게 된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깊이 잠든 나 자신을 일깨우고 업을 닦게하는 귀중한 수행 인연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

어두운곳에 작은 등불이

최봉자 님 (회원, 여, 49세)

JTS 회원님들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부처님 제자라고 감히 할 수 없습니다. JTS 회원이 된 동기는 법륜스님의 인도에서 날아온 편지를 읽고 내용이 너무 감동스러워 눈물을 많이 흘렸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어찌된 일인지 눈물이 멈춰지지 않더라구요. 법륜 스님이 혹시 부처님이 아니실까. 어떻게 아무도 손길을 내밀지 않은 곳까지 보살행을 하시길 원을 세우셨을까. 굶어 죽어 가는 사람을 살리시고 아픈 사람을 위해 병원을 지으시고,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이에게 문명을 심어주시고, 저에겐 정말 말 할 수 없는 감동, 감동이었습니다.

이번 천일 결사 회향식에도 자기의 참회와 서원을 세우는 삼천배 기도가 있었지요. 스님의 한결같은 삼천배 참회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많은 중생을 위해 좋은 일 하시는 분이 어떻게 더 참회하실 일이 있으실까? 저는 스님의 간절히 절하시는 뒷모습에서 스님의 서원이, 그리고 좋은 벗들, JTS 회원님들의 서원이 무엇인가 좀 알게 되었지요. 정말 편하게 살아온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울 뿐입니다. 앞으로 JTS, 좋은 벗들에서 앞장서 하시는 일이면 작은 손길이나마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인도에 파견되어 이웃을 위해 몸 바치신 설성봉 거사님을 보면서 JTS 회원님들 모두가 자랑스럽고 고귀하신 분들입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모두 설성봉 거사님과 같은 세상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보살이십니다. 아직도 스스로 보살행을 실천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의 삶 속에서는 저 역시 어두운 곳의 작은 등불이 되도록 서원을 세워봅니다.

3월 17일 문경 4차 천일기도 입재식에서 우리모두 함께 모여 초발심으로 돌아가 큰 서원을 세워봅시다.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를 다녀와서

박명송 님 (남 서초중학교 3학년)

인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돌아 온지 10일이 지나도 왠지 나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인도로 떠날 때는 자원봉사하러 간다는 기분보다는 인도란 나라를 경험하러 간다는 생각으로 들떠 있었건만 한국으로 올 때는 빨리 한국으로 왔으면 하는 생각보다도 왠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6개월 비자를 받아놓고는 고작 1달 자원봉사 가지고 비행기표 왕복 값이나 했나 싶을 정도로...

인도에서 내가 맡아 한 일은 유치원생과 학생들 밥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장국장님의 도움으로 몇 일간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인도인 2명, 나 이렇게 3명이 200명 정도 학생들과 일꾼들의 밥을 해야 했습니다. 나랑 함께 한 사람의 이름은 람짓, 렛츠만 나이는 둘다 17살로 나랑 동갑이었습니다. 인도는 한국이랑 다르게 17살이면 어른이라는데...

아무튼 그들이랑 같이 1달 동안 일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 4시20분에 기상해서 예불하고, 청소하고 7시에 밥을 먹고 7시 반부터 오후2시까지 점심 밥짓기 그리고 남은 시간은 사무국 지키며 다른 일 있으면 돕고 학생들이랑 축구도 하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5시에는 무조건 게스트 하우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면 날이 저물기 전에 미리 문을 잠그고 안전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인도에 있으면서 고통스럽던 것은 언어 문제였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영어가 인도에서는 주로 쓰이니, 말이 안통해서 손짓 발짓으로... 그렇게 몇 일이 지나니 영어도 약간 흥미로워졌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유심히 들으려니 자연히 영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언어소통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도에 있으면서 한국사람의 성격은 급한데 인도사람들의 성격은 반대로 느려 터졌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안 맞으니 하던 일을 다시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 참을성이 생긴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인도 생활에 정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강도들의 침입으로 설거사님이 총에 맞았습니다. 옆에서 죽어 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려니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졌습니다.

성지순례단과 함께 설거사님의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고 나니 달라이라마께서 오신다고 하여 분주히 준비를 하니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의껏 준비를 했건만 오시지 않으시니 마을사람들만 오라가라 만든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행사를 마치고 나는 다시 밥짓는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람짓, 렛츠만이랑 오래 사귀다보니 자연히 농질도 하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냈던 기숙사 학생들에게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몇 월

며칠에 날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기분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으니 말입니다.

어느덧 한 달이 되었습니다. 봉사자들이랑 지프트럭을 타고 수자타 아카데미를 나왔습니다. 한달 동안 살던 곳을 떠나려니 약간 허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두 한꺼번에 수자타를 나와버리면 허전할까봐 2팀으로 나누어 나왔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어느 호텔 식당에서 함께 먹고 시간이 되어 기차를 타고 가야를 떠나 캘커타를 향했습니다. 같이 일했던 봉사자 형, 누나들도 모두 헤어졌습니다. 내일 모래면 한국에 도착하겠지. 참 세상두 좁네...

미래의 선진국의 나라가 되려면 그 나라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려는 그런 맘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하던 학교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에 되살아나면서, 미래의 세상은 서로 돕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돌아왔습니다....

Good Bye India

인도 자원봉사를 하고 나서

박명주 님 (남, 서초전자공업고등학교 2학년)

2001년12월.24일 우리는 캘커타 도착하였다. 우리는 열차에 몸을 싣고. 가야로 향하였고. 가야에서. 차를 타고 둥게수와리 수자타 아카데미에 도착하였다.

우리가 게스트 하우스 자원봉사. 형님 누나들이 있었다. 내가 보기엔 형님 누나들이 무척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워 보였고. 존경하고 싶었다.

나는 건설 팀에 속해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다.

나는 인도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보다 언어가 통하지를 않으니 더 힘든 것 같았다. 하지만 힘든 점만 있는 것은 아니였다. 애들은 날 따르는 애들이 많았고 건설팀 사람들도. 항상 나를 보면 웃는 얼굴로 나를 맞는다.

나는 힘들 때면 인도와 북한을 비교를 한다. 그러면 힘든 일도 힘든 것 같지가 않았다.

인도에서 했던 자원봉사는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 설거사님 추도식 및 수자타 아카데미 개교 8주년 기념식

1월 10일에 무장괴한들의 총격으로 사망하신 설성봉님의 다비식(1월 12일)과 추도식(1월 13일)이 있었다. 증명 일휴 큰스님, 지도법사 법륜스님 등 한국스님 10여분을 비롯하여 보드가야에 주석하시는 인도 및 세계각국의 스님들 20여분과 보드가야에서 수행정진하고 계신 한국의 많은 스님들, 한국순례객 85명, 자원봉사자 15명, 인도비하르주 경찰국장, 가야시장, 가야경찰서장, 가야시 불교청년회원 50명, 주민 및 학생 등 모두 1천여명이 참석하였다. 수자타 아카데미 개교8주년기념식으로 준비했던 문화행사는 설성봉님의 뜻을 받들어 추모식으로 하였다.

•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 축구 결승전

1월 25일 오후 2시부터 JTS컵 쟁탈 축구대회 결승전이 있었다. '바가히'와 '가왈비가'가 격렬한 결승전을 치렀는데, '바가히'가 2:1로 이겼다.

• 교사 불자회 청림회 회원과 문수원 법우님 외 50여명이 2002년 1월 6일~ 14일 8박 9일동안 인도 성지순례를 무비 스님과 함께 다녀온 후 성금 425,920원 (한화 261,000원, 42달러, 3,660루피)을 제이티에스에 전달해주었다. 여행 중 설 거사님 사건을 전해 듣고 그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성금을 보내왔다.

• 인도실무자들 복귀

지난 6여년동안 인도실무책임자였던 이덕아(선주)님과 마을개발담당자인 정정임(마두리)님이 귀국 JTS모단체인 정토회 국내 업무로 복귀하였다. 2002년부터 인도실무자책임자는 이화승(산띠)님, 재정으로 장영주님이 맡았다.

북한 지원 사업

• 한국 제이티에스는 2002년 2월 14일 라선시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 영양식 재료인 분유 15톤, 설탕 30톤, 옥수수 10톤을 구입해서 부산항을 떠났다. 이외에도 쌀 48톤, 옥수수 10톤은 중국에서 구입해서 라진항으로 들어갔다. 미국 뉴욕 제이티에스 라선시 대표사무소 대표 최경숙 이사님이 3월 1일 중국을 경유해 라선시로 들어가서 이 영양식 재료들을 인수받아 각 유치원

에 배분했다.

국내 사업

- 서울시 2001년 시정참여사업 최종 심포지움이 2월 6일 2시-5시까지 프레스센터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올해는 부적응을 위한 심성수련을 4회 개최하였고, 학기중에는 안천중학교와 삼성고등학교에서 실시하였고, 방학중에는 문경수련원에서 진행하였다.
- 행자부 2001년 민간단체 지원사업 종합평가를 위한 사업보고서제출 및 합동인터뷰가 2월 4일 이북5도청에서 있었다. 우리단체는 실직자들이 수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깨달음의 장에 55명, 나눔의장에 30명이 수련에 참석하였고, 실직자쉼터인 부산 보현의집과 아침을 여는집에서 각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무사히 마쳤다. 종합강평 및 2002년 사업설명회는 2월 20일 이북5도청에서 열렸다.

- 대학생자원봉사자 한양대와 동국대학생 6명이 겨울학기동안 봉사활동을 했다. 또한 겨울 방학중에는 청소년들이 단체를 방문하여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업설명도 듣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였다.

- 2001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매달 25일 11세대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장학금을 각각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 회원관리실 일을 하셨던 최양희(대원심)님이 홍보부 일을 맡게 되었고, 회원관리실은 자원활동가 윤미옥 송하경 소남정님이 맡게 되었다.

- 고 설성봉님의 49재가 정토회 서울법당에서 가족을 비롯한 유수스님 실무자, 신도님들이 모여 그 분의 자비정신을 기르는 행사 가 거행되었다. 유수스님의 영가의 극락왕생를 위한 추도문과 다비식을 비디오로 보았다. 그리고, 이수진 님의 창작극 헌무,합창단의 '빛으로 돌아오서서' '고운님 잘가소서' 합창이 있었다.

물품 지원

- 서울 동우약국의 이혜성님께서 인도 어린이를 위해 구충제 400정, 피부질환 치료크림 80개, 지사제 500캅셀, 종합 비타민제 120정@19통을 보내주었다.

- 부산 해운대구 조귀자님께서 인도어린이를 위해 종합 비타민 영양제 2병, 칼슘제1병을 부쳐주었다.

- 대한 결핵협회와 국립 마산 결핵병원에서 인도 결핵퇴치를 위해 결핵 관련 책자를 보내주었다.

- 삼선승가 대학에서 인도돕기 어린이 의류, 비누 등 23 BOX를 보내주었다.

- 청주 김청자님이 인도 어린이용으로 배드민턴, 줄넘기, 연필깎이, 지우개 등을 보내주었다.

신규회원(개인,단체) 명단

2001년 12월 15일부터 2002년 2월 15일까지 등록된 회원입니다.

북한 어린이 결연

박윤희 211-02534-11
김현빈 211-02535-11
이홍균 211-02536-11
강지영 211-02537-11
이영경 211-02538-11
김길수 211-02539-11
전홍대 211-02540-11
성연우 211-02541-11
윤정자 211-02542-11
이승민 211-02543-11
장경익 211-02544-11
차재규 211-02545-11
류현복 211-02546-11
김성진 211-02547-11
심 진 211-02548-11
남화옥 211-02549-11
이은경 211-02550-11
정의석 211-02551-11
이옥지 211-02552-11
덕장스님 211-02553-11
유명덕 211-02554-11
전경자 211-02555-11
채금선 211-02556-11
소남정 211-02557-11
박수민 211-02558-11
이명선 211-02559-11
전병욱 211-02560-11
이병천 211-02561-11
신은하 211-02562-11
진혜경 211-02563-11
이선영, 서연우
211-02564-11
최진혁 211-02565-11
김정우 211-02566-11
송만수 211-02567-11
송상기 211-02568-11
이민영 211-02569-11
고정주 211-02570-11
이미정 211-02571-11
이연영 211-02572-11
배영미 211-02573-11
박상신 211-02574-11
엄창수 211-02575-11
안선환 211-02576-11
김승조 211-02577-11
최갑률 211-02578-11
김판중 211-02579-11
전병찬 211-02580-11
여영윤 211-02581-11
김계연 211-02582-11
김환국 211-02583-11
최원목 211-02584-11
이학기 211-02585-11
홍범기 211-02586-11
박훤희 211-02587-11
박금덕 211-02588-11
김형기 211-02589-11
공형선 211-02590-11
이정희 211-02591-11
장성우 211-02592-11
권혁자 211-02593-11

인도 어린이 결연

민영자 111-02607-14
최미연 111-02608-14
남기현 111-02609-14
전영순 111-02610-14
이현목, 김태순
111-02611-14
김미라 111-02612-14
한상표 111-02613-14
이경래 111-02614-14
정정엽 111-02615-14
김기복 111-02616-14
최은석 111-02617-14
김진숙 111-02618-14
한판길 111-02619-14
장경희 111-02622-14
최원목 111-02623-14
김미정 111-02624-14

단체 결연

인헌중학교 통일돼지팀(3)
212-00233-11
목동 S.L.P 영어학원
212-00234-11
장작불 212-00235-11

특별 성금

198자 깨달음의 장
참가자 29만원
외환카드포인트접수자
77만 5천원
익명 100만원
불교대학거리모금(대구)
57만 3천 5백 5십원
유윤식 15만원
박차연 생축재 50만원
김인정 100만원
김희정,김현수 100만원
정일례 500만원
황영숙 8만 5천원
황귀숙 100만원
김용주 30만원
김기진 100만원
김민영 50만원
대구아나바다장터
27만 6천원
불전함 30만원
윤현혜 7만 3천 6백원
정일환 500만원
청향사 19만 8천 5백원
김동민 300만원
민승기 500만원
통일민족회의자주평화
62만 천 2백 5십원
김희수 100만원
김조운 10만원
이희석 10만원
임효순 10만원
광야교회 43만 5천원
남배현 23만원
제3차 워크캠프참석자
28만 5천원
홍정혜 34만840원
익명 50만원
익명 9천230원
하나율교회 12만원
김기복,임선옥 100만원
익명 1000만원
한상진 100만원
명성여고 57만 5백원
열린사람들 6만6920원
삼선포교원 300만원
김혜정 30만원
익명 200만원
정운희 10만원
유애경 50만원
문일어린이집 15만원
KT망 설계실 70만원
권기철 10만원
김옥희 200만원
이용직 20만원
민평협 413만원
이수현 5만원
부산소년원지원금
131만 8천원
이혜련 10만원
권소윤 30만원
최재두 5만원
박명기 20만원
마산국군병원군의관
어머니회 10만원
박을순 45만원
대구법당거리모금
60만6640원
김동철 10만원
손정숙 11만5천원
일과 놀이 출판사
1000만원
배외선 1000만원
박덕환 20만원
전용택 20만원
김정택 15만원
배영미 100만원
표순전 10만원
김정규 115만원
김수연 영가 49재
이종은 5만원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1년 12월 5일부터 2002년 2월 8일까지 통일돼지 저금통을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서울

● **개인** 허서종 100,000 권정원 50,000 자광사 100,000 인희진 안승욱 80,000 김원진 23,580 고행자 12,700 김지현 14,300 김동창 7,660 권상례 29,180 김윤성 14,800 김병수 14,070 연지희 11,040 조선경 9,350 한지은 22,650 이종애 18,040 양윤순 9,200 박상택 19,720 강재연57,150 귀빈여행사 28,820 유재흥 33,340 강애니 5,830 이순영 9,600 김중수 20,720 손영희5,770 이수철 27,720 유인경 8,100 김경화 21,030 손영희 10,180 강영희 22,820 김연숙 17,510 김소영 21,450 김기숙 10,870 오정숙 6,150 심유현 19,370 박지운 13,020 최수진 9,200 김애자24,560 이종찬 25,330 이한솔 6,810 정윤희 13,840 강애니 25,300 세륜통일반 63,620 김향42,900 유미경 19,910 우정 25,000 홍소은 17,500 파고다외국어학원 7,280 오택 18,520 김현지 현진 14,910 김은숙 33,890 장영숙 11,100 홍영표 13,740 차영호 12,300 차태환 11,390 윤태후 14,910 김미영 22,200 김민옥 13,000 법융 58,760 이선영 19,710 유순호 20,500 김미희20,300 강문수 27,560 김한상 26,660 우연 19,900 희장엄 14,900 한혜숙 22,600 배금자 27,400 김애자 16,320 이정건 28,640 윤옥순 28,000 이기훈 이단아 10,920 김동영 13,270 오성희 16,300 정구영 12,980 심정순 42,230 윤표 26,600 김근태 김민섭 17,510 강복려 29,510 서원정 65,450 장숙자 42,810 심을래 18,880 김현지 12,460 이택건 25,720 박정심 19,500 박기서 29,160 박기서500 김재천 5,000 박이고은 34,460 박이서로 100,000 달리크리에이티브 996,000 권태영 19,500 권태영 43,290 박신호 23,850 박영순 12,620 엄태선 7,600 엄태준 8,020 이정용 18,000 안희찬 13,220 박남규 13,800 신애자 32,390 박봉지 39,490 이정용 32,260 최영동 25,650 안부금 27,850 이선화 31,500 김정숙 15,810 법보신문 15,010 이정숙 12,570 조정숙 12,100 최연주 28,420 최연주 25,970 최연주 23,660 송명희 20,540 오윤겸 37,700 권혜숙 44,590 외환은행 6,880 조흥은행 안산 10,050 조흥은행 안산 12,010 외환은행 이중훈 11,980 서봉순 31,910 김애경 29,990 여준민 27,250 김정택 19,780 이정자 17,950 이종관 10,910 현소희 16,270 승지원 20,220 박창건 47,990 홍재식 21,040 김슬기 59,390 수레쓰 4,980 이하늘 1,920 박혜정 24,250 박혜경 24,100 박혜경 33,900 하경희 10,000 한영옥 29,400 임무규 61,750 정숙진 28,000 조정휘 43,180 김현숙 25,200 최대원심 7,270 한승희 유도련 10,000 동서전자 30,980 이운 14,680 정화숙 25,450 유승열 30,940 유준열 28,850 장금숙 8,160 이광식 19,350 박종수 26,660 심건섭 16,880 최윤희 26,700 설희정 32,670 이정근 50,780 김혜련 40,000 김용광 30,000 윤우중 27,250 폐인팅레이디 100,000 최윤정 20,400 박선화 15,390 황영태 17,620 배구범 20,400 황대호 13,520 최정연 15,150 최기영 25,930 김인규 47,240 오수진 26,080 윤맹현 12,660 장맹열 3,610 장맹열 7,270 정안숙 19,220 최지윤 28,660 박덕환 67,500 최경숙 38,820 황지나 22,170 김성화 30,120 김정대 100,000 신미철 38,800 김재천 5,000 황태주 30,670 김다솜 16,220 강현수 51,410 권묘희 19,920 김경민 55,520 최솔 16,800 장영석 고선아 10,000 김영애 이영구 20,000 김명화 32,900 백혜진 30,000 만리장성 65,160 방동월 34,070 권영민 13,600 임숙이 27,260 윤완수 18,730 이경희 11,720 이기갑 24,000 이순섭 24,000 박말자 유수용 115,000 공연표 27,850 이정순 39,000 정기예금이자 1,767,464 ● **단체** 구산중학교 김미경(1-6) 2,080 정은주(1-12) 3,390 장기복(1-9) 13,050 이슬 950 이화영(1-13) 9,310 정혜민(1-11) 1,580 방규배 1,300 김명환 12,560 김선아(1-8) 1,350 원성연 (1-3) 6,250 민혜정(1-5) 7,870 안희란 3,370 신원선(1-2) 6,260 변석용(1-9) 1,070 강동혁 (1-7) 850 김효연(1-5) 2,300 허은지(1-5) 3,350 안희란 2,550 이지선(1-5) 4,160 이샛로(1-5) 1,700 박혜경 1,000 김승훈(1-7) 1,060 김연아 520 홍유리(1-6) 4,210 김병오 1,860 이은기13,180 조해빈(1-9) 3,660 김준환 4,200 이하림 1,300 이우현 8,980 김지수 10,940 정준화 1,490 임아담 950 김선

우 820 류동규(1-7) 2,440 김민경(1-10) 4,140 허수미 2,350 임보라(1-8) 1,820 유정주 1,670 김동호(1-5) 1,000 윤효선 4,100 박민우 1,340 최주환(1-12) 2,710 김소연 340 김윤손 470 홍선혜 2,790 김현우 6,150 김영의(1-7) 6,660 김셰미 1,430 박향나 (1-5) 2,040 유현미 5,800 채선화 1,830 조현수 780 박유라 300 이용준 8,940 황대진(1-8) 1,780 장유정(1-4) 3,160 김애용 6,890 최유수(1-9) 6,570 김이진(1-4) 5,470 문현섭 2,860 김현재(1-5) 2,890 배명희 2,880 김세훈 3,890 한미현 5,020 정지애 2,900 한이슬 2,740 박해연 12,280 한선중 1,720 김덕렬 1,080 장재현(1-13) 2,540 정복영 4,630 김셰미 1,930 유지영(1-11) 5,030 김영신 18,630 이지아(1-3) 1,450 김영범 18,330 김유진(1-13) 7,880 박소영 (1-8) 1,820 박정욱(1-8) 3,310 이혜진(1-7) 1,790 최영철 3,980 정용현(1-5) 8,700 이세미 (1-12) 2,750 송하림(1-8) 7,510 정윤길 9,320 서진명(1-8) 1,800 박현주(1-13) 10,720 무명 (1-6) 4,780 백경화(1-7) 5,060 정나래(1-4) 1,660 정현륜 1,020 박규태(1-13) 4,660 권미나 (1-10) 2,620 김남근(1-14) 1,400 강일우 4,590 박형신(1-13) 5,420 김유경 1,750 장연규(1-13) 1,030 이정웅(1-9) 7,100 조민영 1,960 고경범(1-13) 9,060 본동초등학교 300,000 한솔어린이집 김민선 3,370 박상균 7,230 이소미 8,230 이한솔 11,960 최지현 8,460 이지윤 4,750 이준선 25,340 김재윤 7,090 장원석 7,700 김현진 13,170 윤서용 15,230 주현지 5,780 윤정태 8,210 배준환 18,540 최지웅 2,780 황여빈 25,510 김수연 14,270 조유진 5,640 배인하20,480 권용현 990 박건희 5,030 봉천초등학교(5-3) 배소망 880 서정환 1,220 김재선 2,000 이태호 2,440 김연관 2,200 이수련 5,230 이유림 2,530 서수진 1,050 이성민 790 강민 1,150 백지민 8,780 김현식 4,440 김정은 5,200 이동환 2,990 김윤애 1,900 신정호 2,010 이승영 1,150 정민우 1,270 김연주 2,150 서수화1,490 서운영 1,290 이진미 23,210 신다연 3,790 강태규 1,860 신정은 2,120 임호태 1,000 정혜정 710 이지환 20,360 백승호 6,750 무명씨 2,050 무명씨 12,670 무명씨 2,520 무명씨 4,250 무명씨 7,820 순천 대승사 126,540 신흥사 634,390 선덕사 109,580 하디스 분당점 23,250 영풍문고점 21,350 종로3점 29,550 ● **거리모금** 거리모금(설갑문) 174,990 거리모금(2월) 272,450 거리모금(3월) 432,370 ● 무명 24,770 무명 11,980 무명 20,440 무명 24,630 무명 11,210 무명 14,470 무명 22,600 무명 22,740 무명 23,270 무명 39,000 무명 23,130 무명 27,660 무명 41,600 무명 10,120 무명 55,190 무명 40,950 무명 23,730 무명 25,150 무명 14,630 무명 3,770 무명 5,570 무명 46,780 무명 25,780 무명 36,930 무명 39,690 무명 24,130 무명 39,390 무명 670 무명 12,220 무명 16,120 무명 19,560 무명 2,070 무명 24,000 무명 4,980

대전

● **개인** 배시은 15,780 이연화 14,340 김봉근 15,400 김진형 15,560 변상억 2,790 정순자 3,180 박찬억 3,840 김덕순 3,410 김은정 2,750 박상용 770 최화숙 1,730 길순용 15,590 송명숙 12,010 이광길 13,480 송경옥 15,400 김경태 20,620 김종희 17,820 김상태 29,350 임셰미13,580 권소윤 42,300 최재순 16,400 유인자 28,030 최민규 5,670 신길우 9,380 현신화 6,990 황태양 2,200 김윤희 5,640 번영미 11,290 송옥 14,520 김경해 30,570 함점순 70,430 신광호 63,110 박인숙 11,530 미니 s/p 2,740 이순자 3,000 송영성 7,920 동양꽃집 3,200 김선례 7,650 김용궁 1,590 진안 경원 3,500 전외자 16,970 심영숙 9,560 전희령 16,800 이영희 3,620 방은옥 7,000 민정현 2,530 양문규 71,060 김미혜 30,000 양지은 36,960 양현탁 34,990 윤영희 12,590 조원숙 6,330 배영미 27,290 이충숙 6,930 이호준 35,690 심경이 27,400 김성숙 6,820 중앙불교 3,400 윤명숙 2,410 박용우 1,750 양문규 24,730 정귀희 38,480 문성은 3,980 이규희 28,640 전승완 26,140 이상무 14,580 이경선 20,020 박노택 2,040 육진경 1,450 이영남 11,610 이문숙 15,110 김지수 1,820 홍순옥 24,470 김기로 6,850 이남숙 2,680 양순기 18,280 양현호 32,130 심석영 40,050 서순임 16,340 한혜림 17,760 김명정 3,230 김영미 1,920 아나바다 장터100,000 야외법회 회비 86,000 ● **단체** 법동초등학교 2학년1반 17,160 4학년7반 17,200 3학년6반 16,160 2학년2반,4학년1반 18,020 ● **거리모금** 거리모금 690,600 거리모금 564,830 ● 무명 12,820 무명 2,000 무명 1,000 무명 2,000 무명 5,400 무명 60,820

부산

● **개인** 최성희 9,840 허애영 67,200 공원란 1 30,440 공원란 2 20,500 공원란 3 12,720 공원란 4 21,560 박정원덕 11,190 김상록 16,750 유승희 3,880 손근수 15,750 박은향 18,580 최봉자 10,110 이상기 8,650 하

성철 13,200 김태규 5,770 하경옥 28,020 정혜옥 156,900 이경희18,390 박정숙 26,300 김미선 35,900 김선화 10,900 권소영 99,000 정윤희 2,750 최은희 2,970 박지원 25,120 윤용관 1,570 최광수 21,960 이은경 1,880 이수나 9,290 서진영 4,610 김민수15,680 박강규 4,050 김정곤 5,930 구길용 28,740 최광수 24,280 문영환 15,610 문영환 212,710 김성환 7,100 이영재 10,000 황태순 14,010 이수민 정민 강민 22,580 이남선 22,830 이정숙 11,510 추병우 현재 23,960 박선희 24,860 장도현 13,610 김휘숙 17,130 오승란 8,000 임종호 10,710 손경숙 17,510 이옥순 15,300 최정원 15,100 양수미 9,490 한은주 9,190 신순말 26,710 오은선 11,970 이문희 주은 11,240 전경란 5,860 차영숙 6,310 이영숙 23,850 엄찬우 16,690 이재순 23,190 구선용 12,210 구자용 9,950 구춘회 14,200 한옥영 9,390 허영조 70,560 윤병혜 18,960 이주현 28,600 정필순 14,120 전국희 9,660 차순자 25,840 허중구 30,610 김흥순 32,220 손옥희 8,680 장일선 57,120 김흥순 15,050 윤숙남 15,800 박교숙 18,160 서분선 57,100 오수복 32,060 김정길 11,510 허중구 32,580 서혜숙 20,100 하선옥 41,000 손남자 26,100 김애경 13,660 김흥순 21,310 강정숙 10,340 강정숙 60,220 홍영옥 18,750 최임숙 35,900 이순애 20,960 김성자 15,000 반야성 20,140 정현철 10,000 김상조 27,000 진명재 9,300 류선경 18,480 황영애 16,540 강영숙 35,020 장태석 25,880 최민호 8,180 봉생병원약재부 17,450 조호영 35,120 이경선 17,220 김양자 3,040 이해일 13,250 문정자 21,070 홍경옥 26,610 김민정 10,890 박춘선 10,220 부산일보 10,120 부산일보 19,730 시청도로계획과 23,000 장진원 13,250 장선일 12,670 엄세라 5,820 박승준 9,260 노지수 7,080 창서운 11,030 조예진 4,100 권영숙 9,710 박혜원 1,440 이석현 6,400 황동희 14,360 정정남 11,210 서로사 4,680 조지영 5,530 박지훈 10,550 오정미 6,960 성정빈 5,000 전정훈 1,700 심규탁 규환 3,150 이해성 24,800 하성철 4,270 유승희 13,500 김민수 6,670 박진현 20,030 박동우 1,740 오주민 6,770 권영숙 9,190 장주영 6,000 신성훈 3,370 김영진 2,230 김소정 6,990 감민수 9,400 김민수 5,820 황동란 4,060 ● **거리모금** 거리모금 300,000 거리모금 211,130 ● **단체** 반여중학교 3-9 9,600 구남중학교 13,330 ● 무주상 24,810 무명 6,120 무명 8,260 무명 2,200 무명 2,500 무명 46,440 무명 32,290 무명 17,700 무명 7,340 무명 26,740 무명 2,800 무명11,120 무명 14,950 무명 21,890 무명 20,520 무명 15,800 무명 19,090 무명8,250 무명 9,460 무명 31,070 무명 22,870 무명 13,600 무명 45,700 무명 3,200 무명 5,420 무명 21,440

대구

● **개인** 김춘화 30,000 이희복 3,780 박문경 9,320 노영숙 49,710 박애란 6,340 전정임 9,150 현의한 25,840 김정숙 28,570 서연우 16,330 김현자 44,550 김정숙 6,120 김위숙 8,200 김규학8,200 강승화 14,940 윤혜정 23,870 김해숙 22,310 박정선 21,950 최창주 18,920 서화순 6,950 윤채희 18,340 임명지 15,390 장시영 11,550 전재근 34,140 김창심 19,800 유미애 22,670 이승희 9,150 김교선 5,600 전순희 11,740 김지혜 26,120 김정희 8,330 김순득 19,100 김철환 9,170 김옥자 24,930 조명래 19,170 김채윤 1,800 김효민 6,640 강유선 4,270 박은채 1,210 이준권 5,040 이유정 2,420 김도림 2,990 임지영 2,710 전성수 1,480 이지연 1,880 장수인 11,520 김효정 2,560 장부환 10,270 김태현 2,750 김한솔 6,330 유효진 4,320 장리지 3,910 정다혜 1,360 박지수 2,090 임옥예 15,330 이재영 15,890 신인숙 20,160 권태완 25,750 김미라 17,450 전귀향 20,220 최용곤 17,680 박갑금 10,000 박영희 10,000 박준영 20,000 권옥연 29,400 조점자 17,770 김태분 32,480 곽민경 6,750 윤재환 1,760 정길진 6,350 남의순 15,910 김창심 22,060 김태현 3,600 이준권 2,290 박영희 3,780 전병득 100,160 남건우 13,180 백유선 8,460 최용곤 49,710 손태순 8,850 백영자 25,220 이영희 8,600 유재홍 5,050 홍관희 17,150 임은숙 30,520 신금희 27,360 신순남 25,260 최정희 24,140 김창심 10,000 ● 무주상 21,490 무주상 21,300 무명 6,220 무명 24,380 무명 24,830

울산

● **개인** 권주학 11,630 남청자 25,050 박희수 43,090 김혁 6,250 허영호 3,120 한봉희 2,710

전체 후원 현황

2001년 12월 15일부터 2002년 1월 31일까지 회비가 들어온 내역입니다.

● 북한어린이 결연 후원현황

박성종 2만 양용주 1만 (주)로얄기공 2만 (주)경인 10만 (주)소암상사 20만 (주)오리엔스유니온 20만 KT망설계실 70만 강경모 6만 강경희 5천 강명수강문수 4만 강문성 5천 강상욱가족 24만 강석순 5천 강세환 1만 강수현 2만 강숙경,최철 4만 강승목강경목강경희 3만 강시재 5천 강인선 2만 강인숙 1만 강정숙 4만 강중분 2만 강지수 1만 강필성,강동우 4만 강해수 1만 강효영 1만 강희 1만 강희선 7만 강희숙 1만 경은배 1만 경주교도소여직원회금샘 2만 계정희 1만 고덕주 5천 고리곤 1만 고미숙 11만 고미화 4만 고순남 50만 고은영(연세열) 1만 고정주 3만 고진환 1만 고향숙 3만 공보성 2만 공태웅,공민정,최현순 10만 곽명옥 31만 광야교회(안병길) 43만5천 구길용 25만 구이용 3만 권대환,권수현(연) 9만5천 권명숙 2만 권명오 10만 권성환,김광숙,권익수,권익진 1만 권수영 20만 권수정 2만 권애란 2만 권헌양 5천 권혁건 5만 권현숙 4만 권혜진 3만 권호준 1만 권희정 1만 기림사(종광스님) 65만 길효식 1만 김봄 1만 김강민 1만 김경미 5천 김경옥 1만 김경자 2만 김경지 2만 김계연 5천 김계화 1만 김광숙 2만 김광호 2만 김광훈 6만 김귀숙 1만 김귀숙 2만 김규탁 2만 김금순,이호준 10만 김기욱 1만 김기욱 1만 김기진 2만 김기형,박복희 1만 김길진 2만 김나미 2만 김나영 5천 김남선 5천 김도영 246만 김동균 20만 김동민 300만 김동민 1만 김동수,정상신 2만 김동숙 2만 김동원 1만 김동일 10만 김량 6만 김막래 4만 김명렬(변정법사님) 5천 김명숙 5만 김명숙 5천 김명홍 6만 김명희 5천 김명희 6만 김문달 5천 김미경 5천 김미경 10만 김미란 1만 김미량 1만 김미숙 2만 김미숙(스님) 2만 김미아 5천 김미자 1만 김미정 5천 김미혜(2) 10만 김민곤 2만 김민국 1만 김민영 550만 김민정 1만 김병대 5천 김병양 2만 김병영 6만 김병태 4만 김보열 2만 김복남 1만 김복련 2만 김복순 10만 김봉아 1만 김봉찬 5천 김상호(2) 2만 김상훈 5천 김석용(연오) 4만 김석준이해선 1만 김선우 1만 김선우(연등불) 3만 김선희 3만 김성곤 2만 김성권 6만 김성기 2만 김성도 1만 김성열 2만 김성은 1만 김성자 1만 김성진 200만 김성희 2만 김세종,김세원 2만 김수현 1만 김숙자 3만 김순덕 5천 김순숙 1만 김순자 2만 김승미(송한영) 4만 김승조 1만 김승훈 1만 김안옥 6만 김안희 1만 김애숙 2만 김애숙 1만 김양기 6만 김양수 2만 김양수 1만 김양식 2만 김연화 3만 김영복 1만 김영수 1만 김영숙 3만 김영숙 1만 김영숙(3) 6만 김영옥 1만 김영옥 2만 김영옥 1만 김영호 20만 김영화 5천 김예형 2만 김옥희 200만 김용규 2만 김용수 1만 김용수(2) 2만 김용숙 10만 김용완 5만 김용주 30만 김우기 2만5천 김운자 2만 김월금,이선영 2만 김윤영 4만 김윤희(1) 1만 김은경 3만 김은미 2만 김은숙,정수복 6만 김은자 1만 김은하 4만 김은희(3) 5천 김응법사님 10만 김응전 1만 김익록 2만 김인배 30만 김인숙 1만 김일형 1만 김재성 4만 김재순 2만 김재영 2만 김재용 5천 김재웅 4만 김재원 5만 김재은 7만 김재중 2만 김재천(통일돼지) 5천 김재홍(2) 5천 김정선 2만 김정수 1만 김정숙 15만 김정우 50만 김정욱 2만 김정자 1만 김정천(법융스님) 4만 김종숙(2) 2만 김종아,이순문 4만 김종여(소향) 4만 김종인 2만 김종한 2만 김종훈,윤재숙 1만 김준국 5천 김준조 2만 김지수 5천 김지연 1만 김지윤 20만 김지은 5천 김지현(연세열) 1만 김진호목사님 10만 김철수 1만 김태경 5천 김태분 2만 김태희 6만 김택선 5천 김학철 1만 김현기 1만 김현빈 5천 김현섭 9만 김현옥 1만 김현주 1만 김현주 5천 김현주 2만 김현철 2만 김형철 1만 김혜순 2만 김혜옥 5천 김혜원 5천 김혜정 6만 김혜정(효담스님) 30만 김홍미 2만 김화숙 3만 김화순 1만 김효천 2만 김희섭 6만 김희섭 2만 김희수 5만 김희숙 5만 김희정 4만 김희정,김현수 100만 나민성 5천 나와우리 23만 나충주 1만 남궁선 10만 남기중 4만 남선옥 1만 남선희 5천 남영옥 2만 남정숙 20만 남정호 12만 남화옥 1만 노경태 5천 노귀여 1만 노문웅 2만 노선혜 2만 노은정 1만 노재완 1만 노혜남 1만 노희순 5천 누리다운(나준식) 10만 다르마와새빈 16만 담교스님 4만 대구법당거리모금 60만6640 덕장스님(2) 40만 도로교통안전 8천 도상금 2만 도우희 1만 동의대한의대8기 12만 류성열 1만5천 류성욱 1만 류송희 1만 류재상 2만 류향숙 4만5천 류현복 2만 마경숙 2만 마산청송한의원 1만 문종수 4만 문현영 2만 문희정 2만 민성복 1만 민수경 1만

민숙례 1만 민인홍 5천 박경미(2) 10만 박경옥 1만 박경진 6만 박관자 2만 박규흠 5만 박근직 2만 박동환박동미박소라박소희 2만 박라영 4만 박명기 20만 박명운 2만 박민화 1만5천 박봉진 20만 박상신 3만 박석규 40만 박선영 2만 박선화 6만 박성용 1만 박성자 1만 박소희 4만 박수연 1만 박수자 4만 박순자 3만 박순천 1만 박신호 6만 박영선 6만 박영훈 1만 박운기 2만 박윤동 1만 박윤희 2만 박은우 2만 박은자 2만 박은정 2만 박은주 4만 박은혜 6만 박의인 1만5천 박인숙 8만 박인숙(2) 5천 박재복 2만 박재윤 1만 박점석 5천 박정대 5천 박정덕 40만 박정숙 2만 박정애 2만 박정연 6만 박정우 1만 박정현 2만 박정호 5천 박정호(2) 1만 박정희 3만 박종만 3만 박종서,백은경 1만 박종운 1만 박종혁 1만 박주아 5만 박준자 6만 박중희 2만 박진선 5만 박차연 50만 박철홍 5천 박해연 5만 박현미 1만 박현숙(2) 1만 박현숙(3) 2만 방승재(젊은이의모임햇살) 10만 방종선 2만 방판칠 10만 배상훈 1만 배석희 2만 배성효 1만 배은희(김용선) 1만 배정황 2만 백성애 6만 백성현 1만 백순례 1만 백승이 1만 백승주 4만 백승호 1만 백시영 1만 백애란 1만 백연선 1만 백영자 1만 백윤관 1만 백정호,구영자 3만 백종우 5천 백진구,윤선주 6만 백철균 1만 변지학최순희 2만 부부선재회 3만 부산소년지원 131만8천 부산청년정토 148만5890 불교대학거리모금 57만3550 불교법우회 1만 사은희 20만 상용스님(박숙자) 1만 서경석 4만 서경숙 1만 서광석 2만 서대석 2만 서대하 1만 서동우 2만 서동희 1만 서석곤 2만 서용표 1만 서울대보건대학원환경95 4만 서울대역사과87 6만 서울대두엄 22만 서은숙(최승빈) 1만 서자영 5천 서춘성 2만 서현수 1만 서혜정 1만 석진숙 1만 석형산.양애자 7만 선덕사-통일돼지 10만9580 설상옹 1만 설훈의원 4만 성낙표 5천 성명호 2만 성산초등학교 30만 성연우 3만 성일수 2만 성하성 20만 소남정 2만 소병선(자광우) 2만 소암상사 10만 소태정 1만 손애숙 2만 손정숙 11만5천 손정숙 6만 손준기 20만 송동언 5천 송만수 5천 송민화 2만 송상기 5천 송순자 1만 송영돈 1만 송영태 3만 송종순 2만 송준영 6만 송하경 4만 신경화 1만 신광호 30만 신동열 1만 신명화 2만 신선녀 1만 신양희 6만 신영숙 1만 신영자 5만 신원철 5천 신은영 1만 신익철 2만 신재동 1만 신재순 2만 신정순 1만 신청구 5천 신현정 2만 신현종 1만 신혜정 1만 심상득(한마음회) 20만 심상보 2만 심상오 1만5천 심상태 1만 심옥희 10만 심을택,임양호 5만 아니룻다 일요팀 26만 아원공방 5만 안경자 1만 안규환 2만 안금자 2만 안선환 1만 안순득 10만 안승규 5천 안정연 1만 양광혁 2만 양선미 1만 양선주 2만 양수지 4만 양승업 4만 양승일 2만 양영숙 8천 양영우 20만 양옥자 5만 양윤덕오현수 30만 양윤희,김영환 3만 양재서,양재형 2만 양청길 20만 엄기자 1만 엄성민,김순기 1만5천 엄익인 5천 엄효순 2만 여영윤 1만 여희숙 1만 연동희 2만 연세외국어학원 40만 연세대 '열음' 3만5천 열린마음(인월암) 37만5천 엽전갸르미 6만 영근터(유지선) 3만5천 영남농업시험장 78만5천 영축산사람들 20만 오진 1만 오경순 2만 오경진 1만 오금실 6천 오동환,오경환 4만 오선희 1만 오세흥 1만 오순기 6만 오승민 1만 오영아 4만 오원순 2만 오은주 1만 오익환 4천 오재림 2만 오정순 1만 옥영미 1만5천 용인지훈이네 7만 우장희 2만 우정숙 1만 우정인 4만 우현리 2만 원문스님 2만 원서영 2만 유강하 1만 유경자 1만 유경화 1만 유광종 3만 유금 5만 유길자 4만 유명희(아네스) 1만 유미옥 10만 유병삼 5천 유상혁 2만 유성현 10만 유수용,유새미 2만 유숙이 5만 유안나 1만 유애경(마산정토) 50만 유영선 4만 유인자 1만 유정연 3천 유특수.정수경.유건희 1만5천 유하얀,유한샘 2만 유한택 3만 유혜선 1만 윤대호(요셉) 1만 윤미옥(1) 1만 윤선애 2만 윤여단 1만 윤영숙 5천 윤완수 2천 윤정자(2) 2만 윤정준 1만 윤지원 5천 윤해영 2만 윤형락 2만 윤혜경(강형규.강형주) 1만 이형 2만 이가영 2만5천 이건정 1만 이경숙 4만 이경순 3만 이경헌 1만 이경희 2만 이계성 6만 이계원 1만 이광섭,김옥기 2만 이귀숙 6만 이규숙 3만 이규태,이종은,이종진,김현숙 4만 이균 10만 이근회 22만4천 이근회 20만4천 이기승 2만 이기팔,이강성 1만 이덕의 1만 이동범 1만 이동윤 2만 이명실 1만 이명희 5천 이묘임,조성운 12만 이미경 5천 이미숙 1만 이미숙 1만 이미순 2만 이미정(3) 5천 이미혜 1만 이민선 11만 이병천 1만 이부균 1만 이상균 2만 이상수 7만 이상수(3) 1만 이상임 2만 이상호 3만 이선경,강자인 5천 이선규 1만 이선애 2만 이선애 10만 이선영,서연우 2만 이성숙 20만 이성욱 2만 이성준,이병무 2만 이수경(2) 2만 이수경(3) 1만 이수봉 1만 이수원 1만 이숙재 2만 이순향 5천 이순호 6만 이승남 10만 이시안 5천 이시현 5천 이연강(2) 1만 이연숙 5천 이영란 5천 이영석 6만 이영식 1만 이영옥 1만 이영자 2만 이영환 2만 이옥순 2만 이옥지 1만 이용석 4만 이용자 2만 이운(원명행) 2만 이윤경 4만 이윤정 4만 이은경 2만 이은숙(2) 1만 이은순 4만 이은정,조금자 1만 이은종 2만 이은주 4만 이인성 1만 이자명 1만 이재명 5천

이재선 1만 이재승 5천 이재익 2만 이정숙 2만3290 이정숙 31만 이정주 1만 이정현 4만 이종순 2만 이종열 2만 이종은 5천 이종일 3만 이종혁 2만 이주미 1만 이주영(2) 2만 이주옥 1만 이준걸원장님 10만 이준호 3만 이지복 4만 이지식 2만 이지연 10만 이지영 1만 이지은 3만 이진희 1만 이창숙 2만 이창연 1만 이청도,김지수,김지은,김지혜 1만 이청하,이지하,이동하 1만 이춘규 40만 이필중 10만 이한 2만 이한규 2만 이한수 2만 이한우 6만5천 이향명 1만 이혁재 1만 이혜진 2만 이호준 10만 이홍규 1만 이홍균 2만2천 이화은 1만 이희연 20만 이희완 3만 익명 1만 인헌중학교교사들(2) 6만 인헌중학교알뜰시장(1) 49만5030 일화스님 5만 일과놀이출판사 1022만 임경미 1만 임경희 1만 임궁자(차용걸) 5만 임규순 1만 임덕순 4만 임상민,임상목 1만 임상범 2만 임상숙,김무관 1만 임영신 2만 임창호 1만 임현주 3만 임효순 4만 작은이를생각하는사람들 200만 장원 2만 장광성 1만 장성우 3만 장성호 2만 장성호(인도회원에 입력) 2만 장원익 6만 장은미 2만 장일선 1만 장자공부모임 14만 장재호 2만 장진희 1만 장창호 1만 장창호 1만 장철수 2만 장택현 2만 장필례 1만 장하주 2만 장한나(2) 1만 장효란 2만 전건재 5천 전경란 5천 전경자 1만 전경혜 4만 전기환 1만 전병욱 5만 전병찬 1만 전세진 5천 전순자 5천 전은미 2만 전정란 2만 전창훈 1만 전호진 1만 정철 5천 정경숙 2만 정경주,곽영술 40만 정광화 8만 정규동 1만 정덕영,전규화 2만 정말숙 2만 정명희 1만 정명희(2) 2만 정병수 1만 정상일 1만 정석원 2만 정성숙 3만 정수정 1만 정순영 1만 정애경 2만 정여음 2만 정연후 2만 정영배 1만 정영부 1만 정영순 2만 정영자 1만 정옥순 1만 정유선 1만 정유진,최윤선,정해인 10만 정은숙(3) 51만 정의석 5천 정의정 10만 정일국 2만 정임영 5천 정정모 4만 정정숙 5천 정태호 2만 정평화 6만 정헌스님 1만 정현철 1만 정혜수 1만 정혜숙 1만 정혜원 1만 정혜중 5천 정혜중 5천 정혜진 5천 정홍대 3만 정화선 1만 정흥대 3만 정희택 1만 제31기통일법학 20만 제송희 5만5천 조경아 1만 조규복 5천 조금자 1만 조금자 1만 조금자(2) 2만 조금희 1만 조남희 2만 조대환 2만 조명숙 7만 조명숙(3) 4만 조미경 3만 조미라 6만 조병래 5천 조병무조병주 1만 조성현 5천 조영곤 2만 조영보 2만 조옥분 1만 조은성 5천 조정숙 6만 조정옥 2만 조정원 5천 조진규 1만 조혜진 1만 조홍식 3만 주용호 1만 주한섭 4만 죽향 20만 지금련 1만5천 지명자 3만 지선주 1만 지성한의원 13만5천 지원종 2만 지중룡,홍현주 1만 지철이네집 16만5천 진여당 100만 진해연 4만 차길호 2만 차재규 1만 채금선 2만 채창원 8만 청향사 19만8500 최갑률 5만 최경숙 5만 최고은 1만 최광규,김길자 2만 최광수 2만 최규은 1만 최금숙 5천 최기영 1만 최명호 1만 최미연 1만 최미전 2만 최봉자 2만 최상기 2만 최석중가족 2만 최수자 1만 최승엽 1만 최양희(대원심) 1만 최연숙(2) 1만 최영심 1만 최영옥 4만 최영택 6만 최영화 4만 최용선 1만 최원준 5만 최윤희 9만9천 최은숙,장주현(아기) 4만 최은옥 4천 최은주 2만 최인선 1만 최인순 5천 최일영 2만 최점순 5만 최정연 1만 최정엽 1만 최정화 3만 최진룡 4만 최진영 2만 최춘순 6만 최춘우 2만 최현애 5천 최혜자(김광원) 4만 최희선 5천 추인호 1만 통일미래를잇는청년들 58만8400 파워마인드컨설팅 20만 파워미디어(컴퓨터월드) 18만 펜타시스템아티 잔동우회 4만 하용란 1만 한사진 1만 한상규 4만 한상숙 5천 한선희 1만 한성규 2만 한승범한정범 2만 한영선 2만 한임경 2만 한주신한희영한희만 4만 한판기 5천 한혜숙 3만 함재혁 6만 행법스님 10만9580 허윤정 25만 허정도 2만 혜전을사랑하는동문들 5만5천 홍성원,성학 5천 홍순우 1만 홍승표,홍민주,홍배안 2만 홍영준 2만 황구성 2만 황귀숙 1만 황미경,김상훈 10만 황미숙 1만 황미숙(2) 20만 황범주 2만 황성희 10만 황순국 2만 황승오임숙이 4만 황은단 1만5천 황인건 1만5천 황인수,홍정순 2만 황준하 4만 황현심 2만 흥륜스님 6만

● 인도후원 현황

김현주 2만 돈오스님 1만 각철스님 1만5천 강한,강은혜 2만 강경순 1만 강계옥 1만 강미자 2만 강성구 1만 강수빈 6천 강순남 5천 강여경 5천 강영신 6만 강유태 1만 강재연 1만 강주영,이순복 4만 경주귀빈여행사 10만 고경옥 2만 고미영 1만 고민재 2만 고승호 1만 고춘복(보리행) 5천 고필숙 2만 곽명희,김영희 1만 구자성 1만 권기섭 1만 권덕순 1만 권명숙 2만 권미화 2만 권소윤 30만 권영선 1만 권윤정 2만 권익현 2만 권혜숙 5천 금천선원귀중 10만 김경나 5천 김경연 2만 김경희(회광명) 5천 김광수 1만 김광웅 1만 김광호 5천 김광훈,김수경 3만 김금숙 2만 김금자 1만 김기동박현숙 2만 김기용,김정애 5천 김기현 2만 김길자 6천 김누리,김두레 5천 김덕수 2만4천 김도희 5천 김동수 1만 김동영,김민영 1만 김

동윤(실상화) 20만 김명렬 1만 김명숙 5만 김명옥 1만 김명혜 6만 김명희 6만 김미란 1만 김민정 3만 김병양 2만 김봉아 1만 김봉희 4만 김부경 2만 김상수 5천 김상철 6만 김상호 2만 김선옥 1만5천 김선희(3) 2만 김설연,박충규,박형규 1만 김성준 1만 김성호 2만 김송란 1만 김수경(3) 1만 김수복 6만 김수영 2만 김수현 2만 김순자 1만 김순희 1만 김안희 1만 김애경 1005만 김애리 2만 김양수 5천 김양순(무애광) 10만 김양순(2) 1만 김영란(2) 2만 김영은(2) 1만 김영자 1만 김영자(3) 4만 김옥분 1만5천 김옥성(현민,현우) 4만 김옥정(인진행) 5천 김옥희 200만 김완수,서성필,김학준,김학선 10만 김용극 1만 김용숙 1만 김용자 1만 김용주 5만 김용호 2만 김우기 2만5천 김운배,이근석,이보경 5만 김원배 5천 김윤태(법산) 5천 김은영 1만5천 김은정 4만 김인순 2만 김인하 1만 김재령 5천 김재영(묘당) 5천 김재윤 2만 김재희 1만 김점애 1만 김정님(고불심) 5천 김정미 2만 김정민,김상훈,김종호 20만 김정숙(묘수) 5천 김정숙,곽근 1만 김정옥 1만 김정자 1만 김정진,양성완 2만 김정혜 3만 김정혜(2) 2만 김정희 2만 김조운 10만 김종근 2만 김종오 2만 김종완 1만 김찬옥 4만6천 김창연 5만 김태순 10만 김태희 6만 김필성 1만 김해옥 1만 김혜순 5천 김혜영(2) 3만 김홍섭 2만 김화자 5천 김화춘 5천 김효진,김팔순 2만 김희수 1만5천 김희태,김나영 4만 나정인 5천 남경봉 2만 남기현 3만5천 남배현 23만 남연우(무변심) 5천 남재천 1만 남화정 2만 노경태 5천 노동식 1만 노옥재 5천 노정우 2만 노청자 1만 누리다운(나준식) 10만 도공스님 3만 도상금 2만 로순덕 2만 류만재 5천 류영호 2만 류재현 1만 류해권 4만 류홍기교수님 15만 문금영 20만5천 문길련 1만 문보경 1만 문재옥 1만 문정우 5천 문정자 1만 박광식 3만 박금주 2만 박기선(혜광) 1만 박기추 2만 박대근 2만 박대식 2만 박대식 1만 박덕성 4만 박명기 3만 박문수 1만 박문심 4만 박미숙 2만 박미은 5만 박병훈,박나리 1만 박복숭 6천 박상웅 6천 박상희 1만 박석동(법림) 5천 박선기 2만 박선자 4만 박성숙 1만 박성희 4만 박수일(보수) 5천 박숙희 2만 박순천 2만 박애란 2만 5천 박애란(보광화) 5천 박애순 1만 박옥희,박옥임 1만 박우준 5천 박월숙 4만 박은숙 4만 박은영 1만 박은희 1만 박을순 45만 박을순 45만5천 박의웅 2천 박인숙(2) 15만 박정례 2만 박정민 1만 박정숙 1만 박정순 4만 박정호(2) 1만 박종구 6천 박종원 5천 박종윤 1만 박주임(여련화) 2만 박준 1만5천 박지원 5천 박진현 1만 박창재 2만 박현숙(1) 6만 박현숙(2) 2만 박희숙 2만 배경숙 1만5천 배정옥 1만 백무현(선재) 1만 백석희 2만 백숙진 1만 백영자 1만 백혜은 5천 법연스님 1만 변성윤 2만 변은아 1만 변형석,변강혁 2만 복익성 2만 봉금례 4만 불전함 30만 사명순 1만 서기수,서나연 8만 서성무 1만 서혜영,고철수 8만 석미경 5천 설훈의원 2만 성소영 5천 성수경 5천 성은주 1만 성춘복 2만 소병관 2만 소흥난 6천 손경연 15만 손경희 1만 손금애,이승아,이선엽 1만 손순호(능인스님) 1만 손영이 4만 손왕목 3만 손진길 3만 손평자 3만 송동현 5천 송상섭 2만 송영경 2만 송외순 2만 송정희 1만 신경오 1만 신계월 1만 신남식 2만 신동율 2만 신배식,성민수 1만 신범식 1만 신세권 1만 신순자 7천 신연숙 4만 신영미 6만 신원선(자재법사님) 5천 신점식 2만 신흥순 3만 안민환(지장법사님) 5천 안소연(3) 5천 안순희,윤효남 6만 안영덕 2만 안옥순 2만 안은영 2만 안창윤 1만 안현정 2만 양금석 2만 양명수 1만 양석화 5천 양영우 5만 양우진 2만 양창순 1만 양태희 10만 양현애 4만 양희찬 10만 엄철용 5천 오영수,서현주 2만 오은선 2만 오점순 1만 오정명 4천 오정숙 5천 오환순 1만 우정,우연 2만 우계명 10만 원종스님 2만 원지혜 7천 유미경 1만 유병욱,김정옥 1만 유상열 1만2천 유상완 2만 유정길(법운) 5천 유필여 2만 윤교원 4천 윤규희 1만 윤미영 2만 윤보운 1만 윤성희 2만 윤영선 2만 윤영실(자재광) 5천 윤종배 6만 윤태임 5천 윤해숙 5만 음승환,음주완 2만 이경화(2) 2만 이경희,이상현 2만 이광선 1만 이광숙 3만 이규식 10만 이규홍,이혜진 2만 이근관 1만 이길용 5천 이덕아 5천 이덕종,조종남 6만 이동훈 1천 이말숙 1만 이명애 10만 이명희 5천 이문섭 4만 이문숙 20만 이미경 5천 이복남 6만 이상동 1만 이상락행 4만 이상옥 2만 이상협,이동협 2만 이상훈 5천 이석순 4만 이석철 2만 이선민 이성호스님 2만 이수경 4만 이숙희 1만 이순근,이완수 1만 이순길 2만 이순애 2만 이순연 2만 이순호(2) 3만 이순희 5천 이승숙 1만 이승용(종법) 5천 이승재 1만 이승희 4만 이안홍 6만 이연희 1만 이영숙 2만 이영숙 1만 이영숙(일진행보살님) 1만 이영희(1) 2만 이영희(2) 1만 이옥수 1만 이용우 2만 이웅길 5천 이윤경 4만 이은숙(1) 2만 이은정 1만5천 이인규 6만 이장훈 1만 이재운 3천 이정민(보련화) 5천 이정숙 1만3천 이종구 5천 이종두 1만 이종애,권성우 1만 이종주,이주희 1만 이주엽 2만 이주영 2만 이준목 2만 이지은 3만 이지현 1만 이지현 1만 이진욱,이승은 1만 이창윤 2만 이청도 3만 이초아 1만 이태성 20만 이한중,이석춘 1만 이해일

4만 이혁재 12만 이현목,김태순 10만 이현호 9천 이형주 2만 이혜련 2만 이혜성 1만 이홍규 1만 이화승(반야월) 5천 이효순 2만 이효정 3만 이희석 20만 익명 6만9473 인준승 2만 임선호 100만 임수지 2천 임수진 1만 임숙이 2만 임순옥 6만 임영필 1만 임은주 4만 임재곤 4만 임정복 5만 임춘자 5천 임혜진 5천 장덕희 1만 장석채 10만 장성호 6만 장순자 5천 장연지 8만 장영은 3만 장영은 4만 장영주 5천 장옥희 1만 장원옥 4천 장일우,남순우 1만 장재명 4만 장현숙 1만5천 장호철 1만 전서연 4천 전영미 5천 전정란 4만 정영 1만5천 정경주 3만 정광희,권진숙 4만 정구락 2만 정귀조 10만 정남식 1만 정돈영 4만 정명자 2만 정무권 2만 정수정 2만 정순임 1만 정안숙 5천 정양자 2만 정영옥 4만 정용욱 3만 정윤영 2만 정은숙 10만 정인경 2만 정일한 1000만 정재원 5천 정정임(최상미) 5천 정정자 6만 정주연 2만 정창덕 6만 정천헌 2만 정태호 2만 정혜원 1만 정혜중 1만 정환호 2만 정희경 1만 제3차워크캠프 28만5천 조경식 1만 조문 1만 조선자 5천 조성필 2만 조윤숙 2만 조인순 5만 조재형 2만 조정숙 1만 조정휘 6만 조정희 1만 조지종 2만 조진현 10만 조한중 3만 조혜란 1만 조화제 11만 주복식 1만 지미경 2만 진영희 1만 진태관 2만 차경렬 4만 차미리 2만 차재헌가족 3만 차정희 3만 채관석 1만 채세희 11만 채혜연 3만 천정임 1만 최경숙 6만 최귀옥 2만 최금숙 1만 최기주 2만 최기진(정행) 5천 최상순 6천 최선희(묘덕) 5천 최성환 1만 최수정 5천 최승인 2만 최연주 2만 최영이,최원교 2만 최영희 1만 최용재 2만 최우택,최정경 4만 최윤정 5천 최정묵 5천 최정섭 2만 최준화 5천 최진실,최병연 2만 최진아 2만 최충락 2만 최필선 2만 최해담 2만 하경희 2만 하상수,윤해경 4만 하순자,정혜원 1만 하정우 6만 한상복 8만 한상진 100만 한상천 15만 한선미 5천 한성자 1만 한성희 4만 한승수 6천 한승협,한영태 3만 한인봉 1만 한초자 4만 한혜숙,진성근 2만 한혜자 1만 한혜정 2만 한희진 2만5천 함용마 20만 허미혜 2만 허애영 1만 현진스님 2만 현진스님(신소영) 5천 홍기자 1만 홍원선 1만 홍정혜 34만5840 황금영 2만 황수연 1만 황순례 4만 황영숙 8만5천 황인숙 1만 황태순 5천 황혜경 30만 황화숙,남소영,남창길 5천

인도결핵퇴치 후원이 되어주세요

결핵으로 사람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국내에선 국가가 책임지는 질병인 결핵이 제3국에선 목숨을 잃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인도 둥게스와리 지역 일인 노동자 하루 일당이 40Rs(1,200원)인데, 5,000Rs(15만원)인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한사람 살리는데 15만원입니다. 지이바카 병원의 결핵퇴치 사업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쓰입니다.

2001년 12월 이후 역학조사에서 발견된 환자는 초기 2개월 동안 환자들에 대해 아침 영양식(계란, 우유등)을 제공하면서 약제복용을 감독하고, 병원에서 쉬면서 하루 1시간 정도 밭을 가꾸는 등의 공동노동을 하고, 점심급식과 더불어 환자들에게 항결핵제를 투여, 치료하는 방법을 실시합니다. 아침 영양식, 점심식사, 오후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가정형편으로는 치료를 위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으며, 환자들에 대한 영양제 비용의 부담이 너무 크고 무엇보다도 현재 환자들에 대한 직접 관찰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유인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6개월 정도면 완치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은 일인당 16만원이면 됩니다.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2. 1. 31 현재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2. 1. 31 현재

편집 후기

도시에 비가 내려 우울하던 차 전화를 받아 보니
순천에 계신 님에게 매화 꽃이 피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해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여행을 다녀 오면서 전해 준 매화 꽃이 피어 기뻐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새삼 세월의 빠름을 인식하게 됩니다.
항상 따스한 배려 보여 주신 님의 마음이
매화 향과 함께 전해옵니다.
매화 꽃을 띄어 한 잔의 작설차를 마시고 싶은 밤입니다.
이제 비가 오고 나면 대지는 녹고 만물이 소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봄은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회원관리를 하다 홍보부 일을 맡아
봄처럼 산뜻한 소식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직은 어설프고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따스한 눈길로 봐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받고 싶은 소식지
언제나 보고 싶은 소식지
언제나 누구에게나 전해 주고 싶은 소식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제 도시는 화사한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새 봄처럼 상큼한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 心 -

후원 프로그램

단체결연 후원

북한 어린이의 영양 실조 회복을 위한 영양식과 인도 어린이의 영양 실조 극복을 위한 점심 제공

- 한 어린이에게 매일 한끼씩 제공되는 음식값은 한 달에 5천 원입니다.
- 라진-선봉 지역의 탁아소나 유치원 중 한 곳을 지정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1만원이면 인도어린이 50명에게 콜레라를 비롯한 전염병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 $ 80이면 펌프를 설치하여 한 마을의 식수를 해결하고, 각종 전염병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협찬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 제이티에스와 공동 캠페인 또는 단체 내 기금모금 프로그램입니다.
물품을 직접 지원하실 경우 실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정기 거리 모금 행사

서울 : 98년 6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명동거리에서는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 : 부산정토회에서는 매월 격주로 일요일 오후 2시~4시까지 부산역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대구 : 첫째 수요일은 정기적으로 모금을 하고, 한달에 한번은 상황에 따라 날짜를 정하여 모금을 하고 있다.

물품후원

북한과 인도의 어린이를 위하여 어린이에게 필요한 모든 용품을 기증받습니다.
기업이나 유치원 등에 남아있는 재고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의약품 : 구충제, 지사제, 안연고, 피부연고, 영양제
문구류 : 크레파스, 색연필, 공책, 연필, 펜 등
의 류 : 어린이 의류, 잠바, 패딩조끼 등

시간을 후원하시는 자원봉사 활동

- 청소년들의 사회봉사활동 시간을 보다 보람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각 학교, 학년·학급, 개인별로 신청 받아 직접 사전교육 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집에서 가사활동을 하시는 주부님,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익한 봉사활동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일시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작은정성 큰사랑 캠페인: 모금활동
  - 매월 우편물 발송작업
  - 워드작업, 인터넷 작업, 앨범정리, 스크랩 등
  - 후원가족에게 전화방문 등에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문의 및 후원접수
02)587-8756, 587-8995

E-mail:jts@jts.or.kr www.jts.or.kr

이렇게 동참해 주십시오!